

사찰서 좋은물 마실 수 있다는건 옛 말

샘과 수각(하)

사찰에 가면 좋은 물을 무진장 만날 수 있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그 좋은 사찰의 샘물마저도 오염이 되었거나 아예 물이 말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사찰의 샘물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자연적 현상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물 관리를 잘못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말이다.

샘물이 나빠지거나 소멸되는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지하수맥을 잘못 건드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샘물 자체가 소멸되어 영원히 샘물을 만날 수 없게 된다. 샘물이라는 것은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특정지점에서 발생하는 물줄기이다. 그런데 이 수맥을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건드려 수맥이 차단되거나 이동되면 물은 솟아날 수가 없게 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상부지역의 지형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형훼손은 사찰자체에서 벌이는 불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발행위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잘못 평가되었거나 문화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사찰에서 벌이는 무분별한 불사는 샘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보다 주변의 지형을 높여 오염원이 샘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경우, 주변에 건축물을 도입하여 샘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예전에 소박했던 샘터를 치장하기 위해서 샘물과 그 주변을 변형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주 기림사 명안수가 나오는 샘터 바로 위에 화장실을 지어 명안수가 오염되어 폐쇄된 경우가 건축물을 잘못지어서 발생한 사례이다. 샘터를 치장하거나 정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물받이 수조를 새로 만들어 설치하거나, 샘터 주변을 콘크리트나 화강석 혹은 대리석으로 포장하거나, 샘물과는 상관없는 조각물을 설치하거나, 샘물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보호박스를 설치하여 샘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기도를 위해 촛불이나 향을 키거나 공양물을 놓는 것 등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욕심 때문에 샘물의 오염을 자초한 경우도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사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들이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수를 대량으로 취수하면서 나타나는 오염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최근에 많은 사찰에서 맑은 샘물이 나는 자리에 심정을 개발한 후 기계장치를 동원하여 물을 올려 높은 곳에 설치한 물탱크에 저수해 놓고 다시 그 물을 시주자 명단이 가득 새겨진 큰 수조에 담아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이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다.

물맛이 좋기로 이름 높던 여러 사찰의 샘물이 오염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물이라는 것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한번 오염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향후 깊은 자연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게 되고, 불자들을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늘어나게 되면 사찰의 샘물은 오염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님을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이 자연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사찰의 정경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샘물과 관련되는 건축물로 수각(水閣)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수각은 사찰의 후원에 놓인 수조와 관련하여 도입하게 되는데, 도입목적은 수조에 담긴 물의 수질을 유지하거나, 물과 관련된 작업을 일정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함을 높이도록 하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수각은 보통 벽체가 없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정자형식이 대부분인데, 고성 옥천사 수각과 같이 집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때, 후원에 설치하여 작업용으로

- 수맥 잘못 건드리면 샘물 소멸
- 무분별한 불사 샘물 오염 주범
- 지하수 대량 취수 대표적 오염사례
- 사찰 수각 독특한 경관요소 작용

쓰이는 수각은 보통 벽체가 없는 정자형식으로 짓고, 샘물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옥천사와 같은 형식의 수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수각에는 이름을 지어 붙이기도 하는데, 맑고 정갈한 물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많다.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된 수각은 사찰마다 독특하여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성 옥천사의 수각인 옥천각, 수원 용주사의 수각, 영광 불갑사의 수각인 세심정, 남양주 봉선사의 수각, 파주 보광사의 수각, 장성 백양사의 수각 등을 꼽을 수 있다. 옥천사의 수각은 한 칸으로 된 맞배집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수원 용주사의 수각은 후면과 측면 한 쪽은 벽을 세우고, 전면 두 기둥을 화강석으로 거칠게 깎아 세운 후 지붕을 올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보광사 수각은 한칸으로 된 맞배집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불갑사 수각인 세심정은 목조로 단아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남양주 건성암의 창건주 조시중이 혼자마셨다는 독정



수질보호를 위한 장치가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옥천사 수각인 옥천각은 샘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찰에서는 보기 드물게 건축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수원 용주사 수각. 후면과 측면 한쪽에는 벽을 세우고 전면 두 기둥을 거칠게 깎은 화강석으로 세웠다.